

## 안전과 직결되는 열린 소통의 중요성

###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 최재혁 보건관리자

글 임선숙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사내기자 사진 강권신

경북 상주에 자리 잡은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이하 SKMG14)는 이차전지 신소재인 음극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과 기술, 충전 속도를 향상하는 신소재로, 높은 에너지 밀도, 긴 사이클수명, 안정적인 전기화학적 성능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노동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SKMG14의 안전·보건·환경·관리를 담당하는 SHE 팀 소속 최재혁 보건관리자는 노동자 작업환경과 건강관리를 위해 열린 소통으로 건강한 일터를 선도하고 있다.



### 안전한 현장을 위한 여정

최재혁 보건관리자는 임상 분야의 수술실 간호사로 5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그렇게 시작된 보건관리자로서의 10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야장천 힘썼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건관리자 표창장을 받는 기쁨을 얻었다. 이는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 낸 성과였고, 이후 안전 현장을 위한 그의 행보는 계속되었다. PSM 사업장 보건관리자협의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보건관리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우수 사례를 나누는 소중한 역할을 맡으며 건강한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달의 한마디

보건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통'입니다.



여름과 겨울철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원한 스카프와 따뜻한 방한용품을 지급합니다. 직원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체력 단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보건관리자의 일상은 임직원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화학물질 관리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유해 화학물질·소음·분진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환경을 부단히 다듬어 나가고 있다.



“ 안전보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 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서 구성원과 소통하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

### 보건관리자의 역량, 소통이 핵심

최재혁 보건관리자는 새내기 보건관리자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성원들이 작업환경 측정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큰 고충을 느끼곤 했다. 그는 “현장은 생소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 작업장 안전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안전의식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보건관리 이해도를 높여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유소견자의 건강 상담 및 사후 관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력회사협의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성원과의 소통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면 노동자의 보건관리와 건강 이해도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이 이구동성으로 ‘바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전보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 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서 구성원과 소통하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주시 보건소와 체결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통해 금연·절주, 모바일 헬스케어, 정신건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지역과 상생협력해 다양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 건강한 일터,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최재혁 보건관리자 또한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인식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보건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보건 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보건관리자 처우 개선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나비효과’를 떠오르게 한다.

작은 변화와 노력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더 큰 안전과 건강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터와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최재혁 보건관리자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보건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며 지식을 쌓고 있으며,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구성원에게 알리려고 꾸준히 대화를 이어간다.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소통을 통한 진정한 이해를 이끌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무수행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여정이다. 🌱